

“대선공약” “국정과제” 떠들썩 하더니 선거 끝나자 잠잠

광주시 빛그린국가산단 전장산업 유치 어떻게 되어나

광주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앞서 빛그린국가산단에 전장부품 산업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삼성전자 전장사업 광주유치 특별위원회까지 꾸리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선거 이후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선심성 공약'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 투자 유치 '충성 없는 전쟁' = 전국 지자체 간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충성 없는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한국 GM 군산공장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은 현재 가장 왕성하게 삼성의 전장부품 유치를 나서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전장기 제조를 바탕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은 현재 전기장비를 생산하는 270개 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555개 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88개 기업이 위치해 기반시설이 좋고 실증·인증·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정부, 연관기업 등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삼성의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검토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특히 삼성이 밝힌 계획 중 스타트업 지원과 소프트웨어 교육, 스마트공장, 5G 등은 이미 대구에서 미래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투자 경쟁력이 높다고

市, TF팀·범시민 유치기구 출범
정부 예타에 발목 지지부진
전북·경북 등은 삼성 유치 전쟁
광주시·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우현 경제부지사 내정자가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삼성맨이란 점을 앞세워 유치를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경주와 경산, 영천, 구미, 김천에 조성하는 미래형 자동차부품 벨리에 삼성 시스템반도체 공장 유치와 자율주행 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장부품산업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제자리 걸음만=광주 빛그린국가산단에 전장부품산업(전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을 조성하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공약으로 '전장사업 광주 유치'를 발표하고 광주시당에 유치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다.

같은해 삼성전자 광주공장 라인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선거 이슈로도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별 소득도 없이 흐지부지 되버렸다.

이듬해 4월에는 대선 공약에 반영된데 이어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앞서 광주시는 2016년 삼성전자 광주공장 일부 가전라인 해외 이전에 따른 대안

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 유치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치 TF팀 구성, 범시민 유치기구 출범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같은해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인 하만(HARMAN)을 인수하면서 광주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앙부처(산업부)의 부정적 견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기획보서를 보완하고 있고 조만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 전장부품산업 조성은 총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빛그린국가산단 400만㎡ 규모로 2개의 센터와 179종의 관련 장비를 구축해 25개의 과제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1387개 기업을 육성하고 416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삼성전자의 180조원 투자 발표에도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발표가 일주일 여가 지났지만, 광주시나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유치 계획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2016년 총선에서 전장산업 광주 유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떠들었던 민주당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듬해 대선에서 '미래형자동차 전장부품 생산 기반 조성'을 광주 8대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부터 부정적이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광주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에 대한 경례
문재인 대통령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 당시 사용된 태극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지원사령부 정치악용 절대 없을 것”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 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률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묘지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배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멀다"며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도 핵심현안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해법 나올까

20일 광주시·전남도 상생위원회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첫 대면 “민감한 현안 상당부분 협의 끝나”

민선 7기 취임 후 처음으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마주 앉았다. 광주·전남 공항 전남 이전, 한전 공대 설립 등 광주·전남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해 양 단체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20일 전남도청에서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상생 과제 추진 상황과 실천 방

안 등을 공유한다.

애초 30일로 예정했으나 시급성을 고려한 광주시의 제안으로 개최일이 앞당겨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초기인 2014년 10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30개 협력과제를 추진해왔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제2남도대학 건립, 광주전남 갤러리 운영 등 11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남겼다. 에너지 밸리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무안공항 활성화 등 19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민선 6기 마지막에 들어서는 이낙연 전 지사의 총리 임명, 6·13 지방선거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선 6기에서 지지부진했던 공항 이전

문제 등이 민선 7기 들어서도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양 단체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위원회는 2016년 11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우선 풀어야 할 현안은 광주에 있는 군·민간 공항의 이전 문제, 최근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한전 공대 설립, 내년 국비 지원 공동 대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항 이전 시기 등 '속도'와 함께 광주·전남간 공항과 군 공항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도 대략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전 공대 설립의 경우 최근 개교 시기

지연, 규모 축소 등 우려가 나온 상황이라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특히 지역 간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한전의 부지 결정을 지켜보기로 하는 등 대응적 차원의 합의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다만 과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 전례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당일 합의문 등을 통해 최종적인 논의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가질, 편하게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21실 기준), 19인 여행저보함
• 특식 2회, 리츠오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프) & 코코넛 비누 / SET(편의품) • 필리핀 현지 공항(700세아/인원) 포함
• 호텔(이비) 무료강습, 라우라비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델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세 또는 마틴성당, 마탄수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니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기간별 기내(여행비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무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일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인원, 기사/가이드 명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행)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